

# 권리당원 투표-문재인 마케팅-결선투표 파괴력 주목

## 뉴스 초점 / 민주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문재인 마케팅, 결선투표 등이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로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당심'과 '민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해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권리당원 투표 항배 주목=국민여론조사인 민심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당심을 얻지 못하면 당력이 뒤바뀔 수도 있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율이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표심 항배가 경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선 후보들은 권리당원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으며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후보들은 지난해 높은 당 지지율에 힘입어 급격하게 늘어난 권리당원의 표심을 읽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최근 발표한 권리당원의 선거권 기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들로 규정돼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규모는 1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비 납부 규정상 경선 투표권을 가진 당원은 100만 명이 안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광주는 대략 5만여명, 전남은 7만여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권리당원들은 적극적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최우선 공략 대상이다.

## 결선투표엔 예측 불허

## 일반 국민 여론조사서

## 다른당 지지자 제외도

◇문재인 마케팅에 '일희일비'=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경선 후보의 대표 경력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후보들 간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지지자의 고공행진으로 각 후보마다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선거 현수막에 내거는 상황에서 이름 사용 여부는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거 3집 시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광을 기댄 이른바 'DJ마케팅'이 재현되고 있다는 감지 않는 소리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을 활용한 마케팅에 분주한 모습이다.

◇결선투표, 예측불허 결과 나올수도=결선투표는 1차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이 1차 경선에서 바로 과반 득표를 얻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결선투표를 실시할 경우 후보자 간에 연대나 밀어주기 등이 이뤄지면서 예측불허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결선투표가 경선에서 주요한 변수로 꼽힌다. 컷오프 이후 치러진 1차 경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 결과 1,2,3위의 순위가 2차 결선 투표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결선투표는 선두주자보다 후보자들 사이에 유리한 선거 규칙이다.

광주에서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2차 경선에서 강기정·양항자 예비후보의 연대가 점쳐지고 있어 경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남에서는 김영록·신정훈·장만채 예비후보 등 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를 나눠 가질 만큼 지지도에서 호각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2차 경선에서 어떤 후보들 간 합종연횡이 이뤄질지에 따라 경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민주당이 50%를 반영하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다른 정당 지지자는 제외하는 등 '역선택' 방지에 나선다. 안심번호(가상 휴대번호)를 사용한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의 대

사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른 당 지지자가 경선에 참여해 결과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투표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다른 정당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를 고르는 역선택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광주시장 18~20일, 전남지사 13~15일 경선

광주 16일, 전남 12일 TV토론회

광주 23·24일, 전남 18·19일 결선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애초보다 사흘 늦은 오는 18~20일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예정대로 13~15일 치르게 된다. 또 각각 한 차례씩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경선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광주시장은 23~24일, 전남지사는 18~19일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역에서 오는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치른다. 모든 지역의 민주당 후보 경선은 결선투표를 포함해 오는 24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각각 50%씩 반영하고, 본경선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위해 오는 12일 TV 토론회를 진행하고 광주시장 경선 후보 TV토론회는 오는 16일 연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 일정도 확정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회 경선 후보 신청자 142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갔다. 경선후보 신청 마감결과 5곳의 구청장 공모에는 2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시의원 후보 공모에는 20개 선거구에서 46명의 후보자가 신청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개 자치구 20개 선거구에서 59명을 선출하는 자치구의원 공모는 72명의 후보가 등록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 면접은 기초의원원의 경우 선거구별로 지난 6~7일 집단면접 방식으로 치렀다. 광역의원원은 9~11일 발표 10분·토론폰 20분 형식으로, 기초단체장은 15~17일 발표 20분, 토론 40분 형식으로 치른다. 광주시당은 경선 후보자 심사결과를 오는 19일에 발표하며, 선거구별 최종경선 투표 일정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지난 7일 단수 후보 지역과 청년·여성지역 심사 및 면접을 한다. 8~10일에는 복수 후보 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심사 및 면접을 한다. 오는 16일까지 단수 후보자와 경선 후보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 방식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이용섭 “군사독재 부역자 비방은 민주정부 비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군사독재에 부역하고 전두환에게 훈장까지 받은 사람은 광주시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용섭 예비후보를 향한 온갖 흑색선전과 비열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최근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추악한 행위와 저급한 비민주적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청렴한 공직자를 전두환 정권 부역자라고 비방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민주정부를 비판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비방과 모함으로는 죽어가는 광주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고, 정책선거 대 비방선거의 대결에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당당히 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대한 광주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조선대학교 교정에 이용섭 후보의 과거 행적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나붙고,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방선거 후보자의 ‘광주정신’ 검증에 나서는 등 이용섭 후보를 둘러싼 전두환 정권 부역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靑, 권력구조 뺀 ‘단계적 개헌’ 검토

1차 여야 합의 부분 지방선거때 개헌

2020년 총선때 2차 추가 개헌 추진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등을 기점으로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개헌안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6·13 지방선거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 어려운 만큼 우선 여야 합

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1차 개헌을 성사시키고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달라는 말은 여러 번 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합의할 수 있는 상황까지만 하는 것 이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는 스마트폰! 난 티볼리 터치스크린!

폰이 티볼리를, 티볼리가 폰을 똑같이 컨트롤 하는 [양방향 풀 미러링]

### 2018 스마트 티볼리

새롭맞이 티볼리 스페셜 혜택 1  
할부기간, 할부금액, 중도상환을 내 사정에 맞춰 내 맘대로 설계하는

내 맘대로 SMART 할부

할부기간 내맘대로 (48개월 이내 자유롭게 선택) | 할부금액 내맘대로 (할부원금 80%까지 유예가능) | 중도상환 내맘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최저월 12만원대 (가솔린 TXI/T 18,110만원 상환시)

새롭맞이 티볼리 스페셜 혜택 2  
알아서 지켜주고, 스스로 멈추는 세상 똑똑한 티볼리

SMART 드라이빙 케어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LKAS] |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AEBs] | + 신차교환프로그램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광주점 : 광주중앙 529-0003	서광주 : 서광주 383-3434	광주광산 :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 광주빛고을 655-4001	광주백운 : 광주백운 233-2311	광주운안 : 광주운안 573-8900
전남권 :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 목포중앙 277-8000	순천 : 순천 745-3666	여수 : 여수 683-1800	목포하당 : 목포하당 285-7576	광양 : 광양 791-0071	나주혁신 : 나주혁신 331-1500
화순 : 화순 371-3555	장흥 : 장흥 863-2600	나주 : 나주 334-2727	영암 : 영암 473-3456	강진 : 강진 433-3100	해남 : 해남 537-3100	장성 : 장성 395-0007
함양 : 함양 383-5811	완도 : 완도 554-4545	영광 : 영광 353-9500	성서 : 성서 852-2892	서광양 : 서광양 761-8900	무안 : 무안 454-0099	고흥 : 고흥 835-5050
진도 : 진도 542-5888	함평 : 함평 324-3800	여수구룡 : 여수구룡 642-1400	광주점 : 광주점 782-9300			